

## 위대한 보통 사람

위대한 보통 사람이란 보통 사람이 위대하다는 뜻은 아니다. 낯노라는 사람이 많다고 일부터 보통 사람을 내세우는 고까운 생각에서 보통 사람을 추켜올리려는 말도 아니다.

속으로 자기는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우월 의식을 갖고 있으면서, 자기는 보통 사람이라고 빈정대는 것은 낯노라고 뽐내는 경우보다 음성적인 자기과시여서 나쁘다.

민중이나 대중이란 말을 쓰는 경우 가끔 그런 그들이 느껴져서 탈인데, 보통 사람은 우리가 예로부터 흔히 써온 서민으로 생각하는 것이 좋을 듯 싶다.

그러나 보통 사람은 서민과도 좀 다르다. 보통 사람을 '남에 못지 않은 재능과 꾸준한 노력으로 살아가되, 나서지도 않고 처지지도 않으며 조용히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싶은 것이다.

자라나는 세대일 경우는 '악착스럽지도 게으르지도 않으면서, 보통 성적의 온순한 성격을 가진 청소년'일 것이다. 사람에 따라서는 그렇게 미지근해해야 되겠느냐고 할는지 모르나 그런 젊은이들이 좋고, 그런 보통 사람이 보기 좋은 것이다. 그것이 인간을 보는 美學的 眼目이다. 그러나 안팎을 갖춘 진짜 보통 사람이 되기란 영웅 호걸이 되기보다 더 힘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지난 해 말에 TV의 기획물을 보다가 그런 진짜 보통 사람을 발견하고 쾌재를 불렀었다. 지금 일본 교토폭에서 MK 택시 회사를 경영하고 있다는 당년 56세(57?)의 齋藤 植씨가 바로 그 사람이다. 보유 택시 대수 6백 60대로서, 그 프로를 보는 사람들은 어째 그 사람이 보통 사람이냐, 진짜 난 사람이냐 하고 항의할는지 모른다.

외국인에게 짜다는 일본이라는 나라에서 한국인 교포로서 그만큼 될 때까지의 창의력 발휘나 의지적인 행동력으로 보아 유봉식씨는 뛰어난 사람이라고 하기에 충분한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그러나 TV 화면에 소개되는 이 사람을 2시간 동안이나 지켜보면서 뼈저리게 느낀 것은 이 사람이야말로 진짜 위대한 보통 사람이라는 것이었다.

유씨가 몇 대의 택시를 가지고 택시업을 시작하여 6백 60대를 보유하는 MK 택시 회사로 키울 때까지 유씨가 나타내 보인 남다른 기발한 재간은 한 가지도 없는 것이다. 택시업은 손님에 대해 서비스하는 것이니까 서비스를 잘 해야겠다. 그러니 손님이 기분 좋도록 친절히 해야겠다. 그렇다면 운전 기사의 언동이 부드러워야 하는 동시에 타고가는 차 안의 시트가 좋고 서츠가 깨끗해야겠다. 그러니 차 안팎을 깨끗이 닦아야겠다. 또 운전 기사들이 재 시간에 나와 잠념 없이 일을 하려면 집안 걱정이 없어야겠다. 집안 걱정 가운데서 제일 큰 것은 주택 문제니 그것을 해결해 주어야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회사원 주택의 단지를 조성하고 사원 복지를 위해 애써야겠다. 사장이라고 初心을 잃으면 안 되니 자가용차는 안 가지고 때로 자기 자신이 운전석에 앉아 핸들을 잡는 것이 좋겠다. 사람이란 긴장이 이완되

기 쉬우니 때때로 자기 수양을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집단적으로 정신 수양과 직업 훈련을 실시한다 등등.

그러니까 유씨는 사업을 위해 당연히 해야 한다는 일들을 곧이 곧대로 그저 충실히 했을 뿐인 것이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당연한 일로 생각하고 그저 당연히 해왔다는 것. 유씨는 정직한 보통 사람이기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렇지 않고 어느 대목에서 괴를 내어 조금씩 생각을 달리했다면, 절대로 오늘과 같은 멋진 성공은 거두지 못했을 것이며, 다른 택시업자들과 마찬가지로의 그렇듯한 택시업자로서 머물렀을 것이다. 유씨가 성공한 것은 오직 보통 사람의 생각을 보통 사람으로서 실천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유씨는 보통 의미의 보통 사람이 아닌 특별한 보통 사람, 즉 위대한 보통 사람이 된 것이다. 끝으로 씨는 또 한번 보통말로 이 나라가 잘돼야 한다는 애국정신의 핵심을 꼬집어 내어 보았다. “외국에서 사업을 하다보니 자기 나라가 잘 돼야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자기 나라가 잘 돼야 교포의 사업도 잘 됩니다.”

유씨는 또 “말이 많으면 안 됩니다. 저는 말 안 하고 합니다”라고 잘라 말하며 이치를 내세우거나, 변명을 늘어놓아서는 사업에 백해무익할 뿐이라고 강조했다. 유씨에게서 느낀 것은 보통 사람이 발휘할 수 있는 보통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가 하는 점이었다. 그 힘의 원천은 무엇일까? 그것은 보통 사람이 공통적으로 갖는 初心의 힘일 것이다.

사람은 정직해야 한다. 그래서 정직하게 산다. 남을 속여서는 안 된다. 그래서 속이지 않는다. 어른에게는 예의발라야 한다. 그래서 예의바르다. 나라를 사랑해야 한다. 그래서 나라의 법을 지킨다. 소집을 당하면 암말 않고 군대에 가서 나라를 위해 싸운다. 선거는 공정히 해야 한다. 그래서 선거는 공정히 치른다. 정치는 민주적으로 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정치를 민주적으로 하려고 애쓴다. 학생은 공부를 해야 한다. 그래서 학생은 열심히 공부를 한다. 자동차는 차선을 지켜야 한다. 그러면 자동차는 차선을 지킨다. 민주 시민은 질서를 지켜야 한다. 그러면 질서를 지킨다. 청소년은 담배를 피우거나 술을 마시지 않는 것이 좋다. 그러면 청소년은 담배와 술을 삼간다. 여자는 정숙한 게 좋다. 그러면 여자들은 정숙하도록 애쓴다. 감기에 아스피린이 좋다면 아스피린을 먹는다. 쥐를 잡아야 한다. 그러면 쥐를 잡는다.

이 나라의 현실이 어딘가 잘못된 것이라면, 그것은 聖賢의 말씀이 모자라서도 아니며, 국민의 지적 수준이 낮아서도 아니며 탁월한 이론이 없어서도 기막힌 정치가 없어서도 아닐 것이다. 오직 그것은 앞장서서 정치한다는 사람이나 민중에게 호령하는 사람이나 지식이 많은 것을 자랑하는 사람들이나 나라를 사랑한다는 국민들이 웬만큼 갖출 것을 갖추고는 있으면서, 단 한가지 인간의 초심을 잃어서가 아닐까.

보통 사람이면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보통 이치에 따르는 보통 일을 하지 않는데서 보통 일은 보통 일 아닌 특별한 일이 되어버리고, 그 특별한 일을 위해서는 보통 사람이 아닌 특별한 말과 사람이 필요하게 되어 세상 일은 갈수록 꼬이고 어려워지며, 보통 사람들도 보통 마음을 가질 수 없고 개중에는 보통 사람이면서 특별한 사람이 되어 보려고 하다가 平常心을 잃고 자기도 남도 불행케 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일 것이다.

그러나 보통 사람이 보통 생각으로 보통 일을 해 낸다는 것은 보통의 일이 아닌 것이다. 그래도 우리는 저마다 그것을 해내야 하는 것이다. 진짜 보통 사람들이 행복스러운 진짜 보통 나라를 만들기 위하여…….

\*

〈「밝은 내일을 위하여」에서〉